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화려한 공약 남발일수록 실현가능성 없어

6·13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대선이나 총선거는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골목정치가기 때문이다.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큰 선거도 있지만 광역시·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각종 오일초밀한 선거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선거다.

이번 선거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시대가 올 것 같기 때문이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개헌안은 물 건너갔지만 최대한 법이라도 정비해서 근사치로라도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6월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엄청난 감시와 감독도 필요하다. 이전과

다른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정치인을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 적혀있다. 사전 뜻대로만 보면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도 국민들도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자신들의 흠에서 뜯어낸 사람들을 속인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정치를 한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다. 애당초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자고로 목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것

도 쓰고 아픈면 접근하기가 싫다. 때문에 아이들은 기를 쓰고 예방 주사 등을 맞지 않으려 한다. 아프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맞아야 하는데도

때문에 정치인들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달콤한 말부터 하는지도 모른다. 알맹이가 어쨌든 겉포장은 화려하게 한다. 그래야 대중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휘황찬란한 방거리에서 8등신 미인이 눈웃음 날리며 접근해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면 과연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떨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술값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강악화 심지어는 성병까지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잘 판단해야 한다.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

에 혹하지 말란 말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국민들은 속아 왔다. 때문에 이제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무슨 수로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하겠는가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즉,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일수록 그만큼 거짓말을 잘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이 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고 벨스 만델리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마쳤다면 그는 평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다. 난 그런 노력을 했다 이 믿고 있고 그래서 영원히 잠잘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정치란 무엇 이런 것이 아닌가. 그는 또한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다. 단지 노력하는 한 노인일 뿐이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는 말도 했다.

삶이 버거운 작금의 한국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 능력 밖의 화려한 말만 늘어놓는 자들은 절대로 정치인으로 만들지 말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社說

경찰 전문인력 확충 필요하다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비, 분야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수사관' 제도를 대폭 확충한다니 기대가 크다.

경찰청은 종전 15개였던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87개로 확대해 분야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2006년부터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해 보직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경력에 따라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로 인증 등급이 나뉜다.

지금까지는 현장감식,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 관련 분야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범죄 유형 다양화를 고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건설·건축비리, 의료사고, 테러, 사이버성폭력, 뺑소니 등까지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향후 신종범죄가 등장하면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신속히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인증 자격도 전문수사관은 종전 근무경력 2년에서 5년, 마스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종전에는 경찰수사전문수원에서 전문수사관을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직접 심사에 뺄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역과 시험 중심으로 전문수사관을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도 추천과 심사를 거쳐 전문수사관으로 적극 인증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따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범죄 분야를 담당할 전문수사팀 제도도 도입했다. 전문수사관 확충과 전문수사팀 운영으로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신종범죄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높여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去而益詠

去而益詠

▷ 뜻: 소공(召公)이 죽은 후(後) 남국(南國)의 백성(百姓)이 그의 덕(德)을 추모(追慕)하여 감당시(甘棠詩)를 읊었음.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한성금 전남서부보훈지청 섬김이



행복한 섬김

기고문을 작성하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니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보훈섬김이라는 일을 시작하여 여러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시작하면서 더 훌쩍 지나간 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섬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 도움에 손길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이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새삼 다시 깨달았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매번 좋을 수는 없었다.

어르신이 툭 던진 말 한마디와 나에게 가졌던 사소한 오해가 상처가 된 적이 있었다.

10년이 넘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지만 어르신들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그땐 참 힘들었다.

그 때마다 내가 어르신들을 만나 헤드린 일을 보다 더 큰 가치로 인정해주는 분들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었다.

"자네가 케어를 들어왔을 때 내

가 인가적이 없고 잡자듯 누워 저 세상으로 갔을때 뒷감당을 잘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시고, 주게 개선 받았던 어르신은 "이렇게 좋게 집도 수리해주었는데 이 좋은 집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하신다.

이제는 연세가 구순이 되어 기력이 떨어지고 아픈 곳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떨어져있는 자녀들보다 나에게 의지함이 훨씬 커져가는 게 느껴진다. 동시에 나약해져가는 게 느껴져 슬픔이 밀려온다.

지난 해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혼자서 목욕이 힘든 어르신을 모시고 목욕탕을 간 적이 있었다.

구석구석 씻겨드리고 후 넘어질까 옆에 꼭 붙어 케어를 해드리니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르신이 "말이 자상하게 잘도 챙긴다. 부모한테 잘하면 복 받아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대우받고"라며 말씀을 하셨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한 것뿐이었는데 막상 그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은 쑥스러웠다.

나의 소중한 하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까지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배려하며 함께 하루 하루를 보내고 싶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